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경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 ~ 31절>

[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나왔습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공동체)는 더욱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후로, 그 날의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이 계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열정 가운데 머물렀으며,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제자들에게 있었던 진정한 변화는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이는 기적은 복음을 증거 할 때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차라리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1. 성령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시편 2편의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은 시편 2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 2:1-2) [1]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제자들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건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킬 때만 해도, 이 일로 인해서 종교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놓아주게 될 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끌어 이루시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인이 되게 하소서.

[29] 주여 이제도 1)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2)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30] 3)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4)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살피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병을 낫게 하여 주시는데,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다시 한 번 역사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욱 열정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은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아지는 어떤 상태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이고, 우리 각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증거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일은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제목>

1.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을 주소서.
2. 우리를 증인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사용되게 하소서.